

정하늘's China in Focus

BEST EDGE

사드 괴담, '진실' 혹은 '거짓'

Investment Edge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보복조치 혹은 비관세 무역장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일 빈과일보에서 중국 내 한류스타의 방송출연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방송제재에 대한 우려는 괴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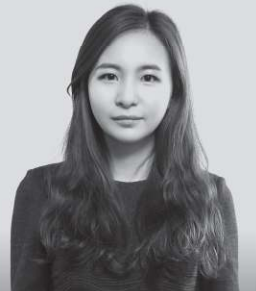
빈과일보(Apple Daily, 苹果日报)는 홍콩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희망하는 신문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출판 금지 및 인터넷 접속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빈과일보의 1일 보도를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언론에 따르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이는 엄밀히 따지면 중국 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

물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여론이 한류에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에서 한국 연예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중국 내에서의 드라마 제작 취소, 연기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 콘텐츠 규제(限模新政)>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2일 '또다시 확산되는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 우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결부되는 문제라고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곧 광전총국이 총대를 매고 한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물론 최근의 韓中 관계를 감안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무역 보복조치를 시작한다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중국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무역 보복조치는 한국 경기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버릴 것으로 내모는 것으로 가능성을 낮다.

작금의 '사드 루머'는 우려감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언론이나 SNS에 넘쳐나는 '카더라'식의 루머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스탠스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우려는 '진짜 현실'을 덮어버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hina Economy

정하늘

02. 3779-8987

haneulj@ebestsec.co.kr

표1 외교/안보 이슈로 무역 보복조치, 단 세 차례에 불과

시기	상대국	사건	무역조치
2010년 9월	일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희토류 수출 중단
2010년 10월	노르웨이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	연어수입 중단
2012년 5월	필리핀	스카보러섬(황옌다오)의 영토분쟁	필리핀산 바나나 통관 거부

자료: 언론자료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국의 핵심적 이익(核心利益)이란 무엇인가

핵심적 이익(核心利益)이란	핵심적 이익에 대한 해석
①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u>보수적</u> 으로 핵심이익을 정의하면 티베트, 신장, 대만 등의 지역 <u>확대 적용</u> 할 경우 중국의 영토, 영해, 주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
②영토 및 주권보호	
③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발전	* 중국의 국가이익은 일반이익(一般利益), 중대이익(重大利益), <u>핵심적 이익(核心利益)</u> 으로 구분

자료: 언론자료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사드 괴담, 진실과 거짓: ‘카더라’ 루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루머	진실여부	내용
중국에서의 한국 연예인 활동금지	거짓	빈과일보의 보도 내 광전총국의 조치
1만명 이상의 콘서트 불가	거짓	빈과일보의 보도 내 광전총국의 조치
BigBang, EXO의 중국 내 콘서트 불가	거짓	빈과일보의 보도 내에서 향후의 파급효과의 예를 든 내용
한국 연예인(지창욱)이 촬영하던 드라마 중단	거짓	인터넷에서 루머로 전파
한국의 상용 복수비자 발급 중단	거짓	중국 마오파(茂发)국제여행사에서의 상용 복수비자 발급 시의 초청장 대행업무 중단
함부로 애똥하개'의 김우빈, 수지 팬미팅 연기	진실	요구 공식웨이보를 통해 연기 공지
9월 1일부터 한국 연예인 중국 방송 금지	거짓	합성사진으로 판명

자료: 언론자료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9월 1일부터 한국 연예인 중국 방송금지 괴담은 ‘합성사진’



자료: CCT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8월 3일 중국청년보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 아직까지 당국의 어떠한 조치 없어

최근 웨이보와 SNS를 통해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 제한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국제관계 영향으로 광전총국(廣電總局, 라디오, TV 영화 산업 등을 관리감독 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이 8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 영화, 콘서트 활동 빈도를 조정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 활동 역시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라면 <팔월未央(八月未央)>(정지훈)을 비롯해 <선풍소녀 2>(지창욱 주연), <무신 조자룡2>(소녀시대 윤아, 김정훈) 등 중국 내 인기 드라마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국 관계자간 인터뷰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중국 내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중 한국 예능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곳은 장수(江蘇)위성의 <The REMIX(蓋世音雄)>(싸이, ikon, MONSTA X, VIXX)과 동광(東方)위성의 <화양남단(蓋世音雄)>(UNIQ 김성주), <가유미소녀(加油美少女)>(Bigbang 승리), 텅쑤채널의 <The Collaboration(作戰吧偶像)>(송민호, 강승윤, 지코, JAY)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영화 부문에 있어 황치열이 OST에 참여하고 주원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Sweet Sixteen(夏有乔木雅望天堂)>이 예정대로 8월 5일 개봉된다. Bigbang의 승리가 출연하는 <위아이통요우(宇愛同游)>는 현재 홍콩에서 촬영 중이며, 8월 1일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 밝혔다.

드라마 부문에 있어 유쿠(Youku) 측은 한국 KBS의 <함부로 애틋하게>의 방영은 현재 까지 차질 없는 상태며, 8월 6일 있을 김우빈, 수지 팬미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SBS의 <보보경심:러(步步惊心:麗)> 또한 정상적으로 8월 29일 한중 양국에서 동시 방영 예정이다.

콘서트는 7월 30일 선전(深圳)에서 장근석 콘서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8월 26일 있을 황치열 콘서트(베이징에서 진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8월 상하이(上海)에서 있을 EXO 콘서트 취소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올해 3월 26일 EXO 콘서트가 팬미팅으로 변경 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당국의 규제 루머와는 무관하다 밝혔다. 또한 EXO의 중국 콘서트는 9월 30일 항저우(杭州)에서 가질 예정이며, 상하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항저우, 우한(武漢), 지난(濟南), 청두(成都), 베이징(北京) 등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8월 3일 오전 10시 24분, 유쿠는 공식 웨이보에 김우빈, 수지의 팬미팅이 연기되었음을 공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하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